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 2146호 2020. 7. 26. 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3,5-6ㄱ.7-12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28-30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13,44-52 또는 13,44-46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그 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신부님 말씀

하느님 나라로…

16지구 오류동 성당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님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동 성당에서 사목 중인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어릴 적부터 봐왔던「작은마음」에 직접 글을 쓰게 되어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답니다.

한창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기에 친구들 모두가 기쁜 방학을 맞이하여 학기 중에 해보지 못한 어떤 즐거운 일을 해볼까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었겠지만, 올해는 방학이 늦어져 더위 속에서도 계속 등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날씨는 덥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내서 학교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신부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친구들도 나와 친구들 그리고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밭에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이, 올바른 삶을 선택한 이라고 신부님은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음 사람을 위해 버튼을 눌러주거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 잠시 잡아주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더운 여름, 힘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더불어 매일 착하고 좋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⑳

*퍼즐 조각을 모아서 붙이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로 비유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군중 ② 하늘 나라 ③ 가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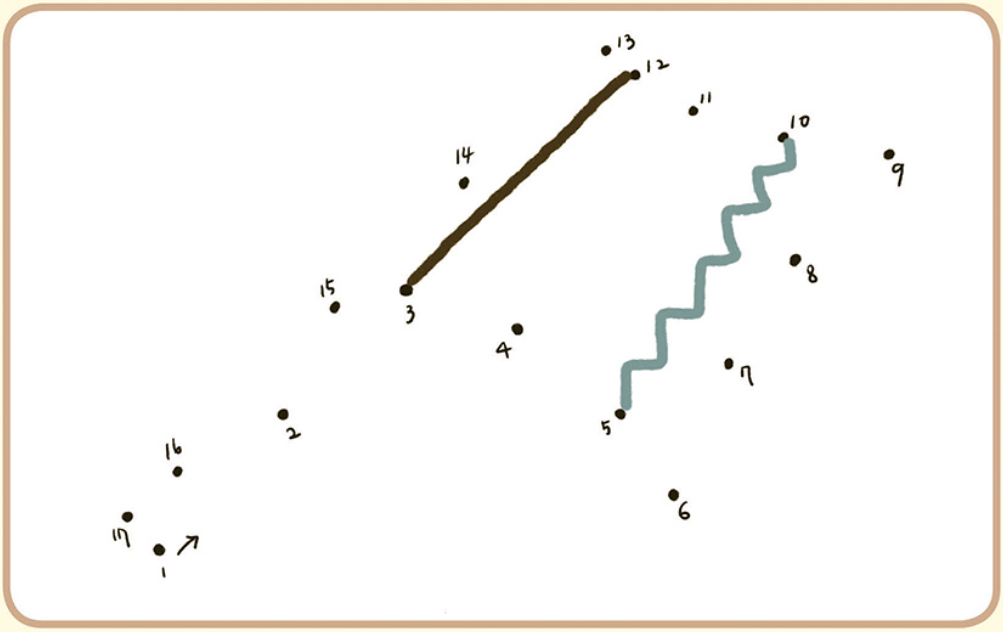
♥ 똑똑똑! 예수님, 우리 왔어요. ♥

도란도란 성경여행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주다 (열왕기 하권 6,1-7)

엘리사와 종들이 요르단 강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스승님, 저것은 빌려 온 도끼인데요." 하고 소리치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다.

* 열왕기 하권 6,1-7을 읽고, 숫자를 차례로 이어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그림_이지영 카타리나

복자 돋보기

복자 한신애 아가타 (?-1801년) / 신분: 연락원, 부인

복자 124위 초상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신애 아가타는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의 전교 덕분에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종을 강완숙 골롬바의 집으로 보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교리에 밝은 남자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다른 종들에게도 교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어요. 대신 그는 김연이 율리안나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강완숙 골롬바와 함께 여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지요.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정복혜가 거두어 온 천주교 서적과 성물을 자신의 집 곳간에 숨겨두었다가 얼마 뒤 이 사실이 알려져 동료들과 체포되었어요. 이후 형조에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당한 후 동료들과 사형 판결을 받아 1801년 7월 2일 서소문에서 순교하였어요.

글_ 김연재 엘리사벳

윤이의 그림일기

2020 년 7월 26일 일요일 | 마음 날씨

제 목 : 유치원에 가고 싶지만

우리 유치원은 진짜 넓어서 좋다. 수녀님도 계시고 책도 많다.

그런데 엄마가 없다. 유치원에 가면 재미있지만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우물쭈물한다. 유치원에 가고 싶지만 가기 싫다.

선생님이 울음 뚝이라고하면 더 눈물이 난다. 마음이 빨리 익숙

해지면 좋겠다.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